



분단의 장벽을 깨고
하나가 된 나라

독 일 (2)



배 순 덕

쿠담가에서, 거리를 돌아다니며 스케치를 하다가 목이 말라 슈퍼마켓을 찾아들어 갔다. 복숭아와 토마토를 사고 계산대에 줄을 서서 보니 대부분의 사람들이 형견으로 된 가방이나 바구니를 들고 와서 물건을 담아간다.

내가 빈 손으로 서 있자 점원은 비닐봉지를 흔들어 보이며 여기에 담아도 되느냐고 묻는다. 당연히 봉지에 담아주어야지 빈손인 사람에게 뭘 물어보는가? 하고 우리 식으로 단순하게 생각하며 고개를 끄덕이기가 무섭게 ‘찰칵’하고 계산대의 돈이 올라갔다. 비닐봉지 한장이 복숭아 몇개값과 맞먹었다. 우리보다 몇배나 더 잘 사는 나라가 인심한번 고약하구나 하고 씩씩하게 생각했다.

독일은 소련이나 폴란드에 비교하여 물건값이 엄청나게 비쌌다. 그림에 필요한 도구 몇가지를 살 요량으로 서점을 비롯한 몇 군데 상점에 둘러보았으나 가격이 워낙 비싸서 엄두도 못내고 그냥 나왔다. 대신에 베를린 시내에서 가장 변화한 거리로 통하는 쿠담(Kudamn)의 이곳 저곳을 스케치했는데, 오가는 사람들의 시선이 일제히 내게로 쏠린다.

하긴, 변화한 거리에서 흰 모자를 눌러 쓰고 스케치에 열중해 있는 키작은 동양인 여자가 그들에게는 신기하게 보였는지도 모르겠다. 발길을 멈추고 한참씩 들여다보는 사람도 있고 말을 걸어오는 사람들도 더러 있다.

그런데 그들이 물어오는 첫마디는 한결



▲ 쿠담거리. 쿠담은 베를린 시내를 동서로 관통하는 6km 정도의 중심부 변화기이다. 그러나 화려한 쿠담의 뒷길에는 넓고 우중충한 건물과 소외된 지역이 공존하고 있다.

같이 일본인이냐는 것이다. ‘명청한 녀석들, 동양에는 일본만 있나?’ 그러나 길으로는 활짝 웃으면서 나는 한국에서 왔노라고 설명해 주었더니 한국이 어디에 있는 나라냐고 되 묻는 그 말이 나를 정말 아연케했다.

‘한국을 모르다니-.’ 감상이 수려하고, 오천년의 유구한 역사를 지녔고, 팔팔올림픽을 치렀고, 장차 세계적인 경제대국으로 도약하려는 내 나라 한국에 대한 그들의 인식이 이처럼 미약하다는 사실에 순간적으로 자존심이 상했다. 한편으로는, 우리는 행여 자기도취에 빠져있는 우물안 개구리

는 아닌가 하는 의아심이 생겨 그 후 여러 날동안 많은 생각을 갖게 했다.

베를린 시내 곳곳에 서 있는 동(銅)으로 된 조각상과 교회건물의 동근 지붕은 참 인상적이었다. 그런데 거리의 동상에는 백록색의 구리녹이 우리나라 박물관 지붕처럼 곱게 핀 것이 아니라 빛물이 흘러 내린 것처럼 약간은 지저분하고 칙칙하게 보여, 베를린 시내의 대기오염이 예사롭지 않음을 느끼게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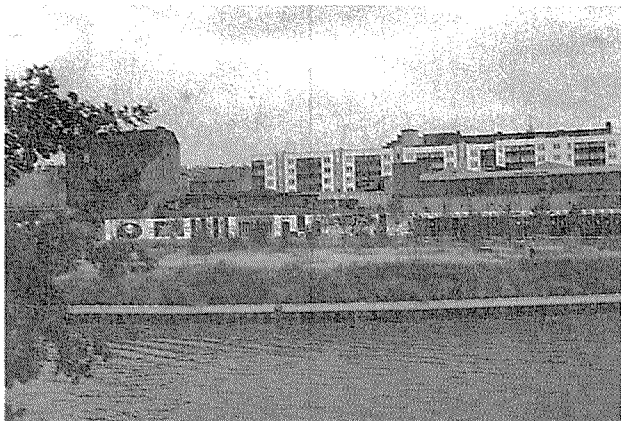
그렇지 않아도 환경문제 때문에 그들도 많이 고심을 하고 있고 다각도로 그 대책을 마련 중이라는 안내인의 설명에, 슈퍼마켓에서 환경오염의 또 다른 원인이 되는 비닐봉지의 값을 비싸게 받는 이유를 이해할 것 같았다.

베를린이 독일제국의 수도였던 당시인 1894년에 지어졌다는 제국의회 의사당은 전쟁 중의 총탄 흔적이 무수히 박혀 있음에도 불구하고 옛 수도의 위용을 나타내는 웅장함은 그대로 남아 있었다.

돌로 된 거대한 의사당 건물 안에는 관람객이 많았다. 웅장한 외형과는 달리 의원들이 회의를 할 때 사용했다는 회의장안은 딱딱한 나무의자가 빙 둘러 서있는 정도로 단순하게 치장이 되어 있었다. 의원은 국민의 대변자로서 가장 낮은 자세로 임해야 한다는 의미가 함축된 꾸밈이라고 한다. 의사당 넓은 홀 안에는 여기저기 조립식 칸막이를 하고 전쟁과 관련된 자료들이 잔뜩 진열되어 있다.

히틀러가 지배했던 시대와 그의 행적,

슈프레 강 건너의 ▶
검은 십자가. 회계 쓰여
진 숫자는 강을 건너다가
총에 맞아 죽은
사람들의 수이다.



제2차 세계대전이 일어나게 된 배경과 그때 희생되었던 국내외의 희생자들의 숫자까지 밀납인형의 모션과 도표와 사진 등을 동원하여 당시의 역사적 상황들을 상세하게 보여주고 있다.

그들이 이처럼 자랑스럽지 못한 그들의 과거를 낱알이 보여주는 건 이 지구상에 다시는 그와 같은 역사의 오류가 되풀이되어서는 안된다는 반성과 교훈의 의미가 함축된 것이라고 한다.

독일인은 자신들의 잘못을 솔직히 시인하고 전쟁피해국에 대한 보상에도 성실히 임했다는 사실이, 우리를 삼십육년간이나 지배하고도 솔직한 사과를 하는데 오십년 가까이 걸렸던 이웃나라 일본과는 큰 차이가 있어보였다.

슈프레강 줄기를 따라 차가 달린다. 강 건너 쪽에 색깔도 선명한 흰색의 숫자가 적혀진 검은 십자가가 열을 지어 서 있다. 판에 새겨진 숫자들은 모두가 동베를린을

탈출하다가 총에 맞아 죽은 사람들의 숫자라고 한다.

결국은, 이렇게 장벽이 무너지고 통일이 될 터인데 이십팔년간의 단절은 자유를 그리워 하는 많은 사람들의 생명을 앗아가고 가슴가슴마다 슬한 상처만을 남기고 막을 내렸다는 사실이 마음 아프다. 거기에, 그보다 더 긴 세월을 단절하고 살아온 우리의 현실이 대비되어 보여짐은 분단국가의 국민으로서 어쩌면 당연한 감상인지도 모르겠다.

그날 밤 외출에서. 나는 다른 사람의 부축을 받아야 할 정도로 독일식 흑맥주에 흠뻑 취했다. 그렇게 많이 마셔보긴 난생 처음이었었는데 그 동안 누적되어온 여행에서의 피로와 이국인들에게 건드려진 내 자존심이 그 밤, 나를 그렇게 흠뻑 술에 취하게 했던 것 같다.☞

〈필자=화가·호는 창랑(滄浪)〉